

2014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4.24(목) 15:00~16:0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건이 터져서 온 국민이 비통한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는 기간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사건보도와 관련된 의견을 많이 주시리라 생각하고 이번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당사자 귀한 생명 그리고 관계된 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강대인 위원장)

▲ 재난보도 개선 및 유의사항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면상에 웃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잡혀서 취재시 주의를 기울려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항상 재난보도를 할 때 예는 유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보기가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모든 방송사가 마찬가지임. 체육관 숙소에서 지나치게 카메라를 들이대서 유가족들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음. 유가족들 배려위해 되도록 멀리 떨어져 보도를 해줬으면 함(김용주 위원)
- 재난보도의 가이드라인마련과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해야 할 것임. 이번 속보성 경쟁에서 나타나는 오보는 여전히 문제였고 사실 확인을 하는 정확한 보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구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발표에 의존해 무조건 다행이라는 톤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언론이 해줘야함
뉴스Y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서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재난보도의 준칙을 잘 지키는 보도가 되면 좋을 것임(양승찬 위원)
- 뉴스Y뿐만 아니라 타방송사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일한 뉴스의 반복이 식상했음. 인력 면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교과서 같은 얘기이지만 중간 중간에 다른 뉴스를 섞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음(이용우 위원)
- 현재 8일째 되가는 사건사고 보도시 언제까지 속보경쟁을 할 것인지 시점 등 고민하고 있을 것임. 세월호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유가족의 상처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콘텐츠가 규형을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함(이용우 위원)

- 뉴스특보를 일주일 이상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언동' 등 저녁뉴스가 다음날 저녁뉴스에 또 방영되다보니 뉴스로서의 신선함이 떨어졌음(이용진 위원)
- 재난보도에는 정확한 보도가 우선해야 함. 특히 사망과 관련된 소식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속보에 신경 쓰다 보니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져서 아쉬웠음(최현철 위원)
- 외신보도를 인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 특파원이 없는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음.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무분별하게 외신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음.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데 CNN이 왜 등장하는지, CNN의 사건 원인을 보도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인지, 또한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최현철 위원)
-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정부도 우왕좌왕하지만, 방송사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난보도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바다와 침몰 배, 초기 구호 상황 등을 볼 때 제대로 된 보도인지 의아했음. 예전 9.11 테러 때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하는 화면을 미국 방송보다 더 많이 보여준 것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쓰나미를 일본 방송보다 더 많이 보여준 것 등 과연 이런 화면을 지속적으로 중계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최현철 위원)
- 이제 얼마 후 장마와 태풍이 오고, 그 피해가 날 텐데, 지금부터라도 재난보도 매뉴얼을 갖춰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4월 17일 5시 35분 한 실종학생의 어머니와 전화연결로 시간을 할애할 때, 타사는 가족들이 있는 진도체육관에서 대통령이 가족들과 의견을 듣는 실황 방송을 해 뉴스Y와 대조를 이루어 아쉬웠음(강대인 위원장)
- 4월 18일 오후 10시 앵커가 단원고 교감 자살소식 관계로 진도체육관의 임모 기자와 연결한다고 했으나, 막상 임기자는 일반적인 상황 리포트만 하고 교감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음. 이에 대한 앵커의 해명이나 사과가 없어 아쉬웠음(강대인 위원장)
- 단원고 학생 325명의 생명도 귀한 것이지만 함께 승선한 150명의 일반 승객의 안위도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함. 너무 학생 중심으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외국인이나 일반인들의 대한 배려가 적었음(강대인 위원장)
-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매체가 사고 관련 소식에 매달리는 문제, 특히 방송의 경우, 지상파, 종편, 뉴스채널 등 9개 방송이 동일한 사건보도를 며칠씩 집중보도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들이 사장되어 며칠간은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크고 국민들이 관심이 큰 주요 스포츠 경우도 방송사들이 돌아

가면서 다루듯이 이번을 계기로 국가적인 재난보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검토되어야 하겠음(강대인 위원장)

- 재난보도의 경우에도 방송사들간 협이나 규칙을 정해 돌아가며 보도를 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과열 취재에 따른 오보는 뉴스Y와이는 문제가 될 만한 오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지나친 경쟁 보도가 오보 문제로 불거지는 문제는 짚고 가야할 할 사항임(강대인 위원장)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리스크 관리, 위기대응 능력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모든 언론이 세월호 참사 보도에만 집중, 매몰되어 비균형적 정보전달 등 문제점을 야기했음(이헌규 위원)
- 중장기적 시각으로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 고민 필요함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은 "싱가폴, 한국, 대만과 같은 신흥국이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의식 및 문화적 학문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30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일례로 CNN의 경우 사실적 태도로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반면 현재 국내 언론은 정적·감정적으로 표현하여 언론의 객관적 보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이헌규 위원)
- 특히, 재난보도의 경우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확한 정보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와의 상시 협력 체계를 갖춰 언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헌규 위원)
- 4월 18일 뉴스특보 세월호 사건이후 모든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현장연결과 생중계로 진행되다보니 사건 초기에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이 발생되어 안타까움. 아직 구조 및 사고 집계가 수습되지 않은 초반에 '해운사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금 지급' 관련보도는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듦)
또한 구조된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희생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기분 등을 질문하고 실종된 친구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한 행동은 취재원의 소양이 의심되는 적절치 못한 모습이었음(이헌규 위원)

▲ 정확하고 심층적임 보도 및 검토사항

- 4월 10일 뉴스워치는 '제주발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신선하게 다가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주발담'이라는 용어를 알 수가 있는 기회였음. 하지만 뉴스가 새로운 정보일 때는 시청자가 궁금해 할 만한 정보들도 꼼꼼히 취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음.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현재 유산에 등재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도 함께 알려주면 '제주발담'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는데 더 좋은 뉴스가 되었을 듯함(성낙용 위원)
- 금요일 밤 이슈토크 짬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직 딜러가 말하는 카지노의 세계를 소개했는데 내용이 다분히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황

금 시간대에 뉴스Y가 전달하는 정보의 질적 수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4월 13일 밤 해외특선타규에서는 오하이오의 노예소녀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안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규범을 봤을 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진 않은지 뉴스 아이템 선정 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함(양승찬 위원)
- 과거에 비해 북한 관련 뉴스의 양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그리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면, 4월 6일 아침 5시 45분에 방송된 뉴스에서 "김설송"씨 얘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 인물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없었음. 또한 영국의 BBC가 북한에 텔레토비를 제공한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중 있게 다룰 문제였는지 생각해 봐야함(최현철 위원)

▲ 화면구성 개선필요

- 자막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며 표현도 매끄럽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방송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뉴스 속보 자막으로 '광공업 생산 전월대비 1.8% 하락 주요 지표 빨간불 자동 차생산 부진' 이라는 띠 자막이 광고 중 나옴. 의도된 예고인 것으로 보이는데 속보로 적절한지 의문임. 광고 다음에 등장할 뉴스 다이제스트 아이템 소개 정도였는데 속보로 처리할 아이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양승찬 위원)
- 4월22일 19:50분경 하단자막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다가 황급히 뉴스를 교체하는 모습 등이 그동안 수고를 감하는 것을 생각할 때 힘들어도 조금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이용진 위원)
- 시청자 릴레이 인터뷰 장소가 매일 동일한 곳에서 진행되다보니 신선함이 너무도 떨어짐. 당일날 여러 장소가 아니라 최소한 매일매일은 다양한 장소에서 인터뷰를 준비해 식상하지 않도록 했으면 함(이용진 위원)
- 본 뉴스의 자막과 화면 아래 실시간 연합뉴스에서 보이는 자막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치하도록 해야 함(최현철 위원)
-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뉴스특보에서 긴박한 상황을 알려주는 뉴스 속보 자막 처리시 화면 하단의 가로 스크롤 자막은 시청에 방해가 됨. 시청자로 하여금 뉴스 속보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화면 하단에 또 다른 자막이 흐르고 있어 시청에 집중이 안됨. 필요시 화면하단 공간에 자막이 들어와 약 2초 정도 정지 후 나가는 방식의 자막처리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성낙용 위원)
- 메인 자막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고려해 보았는지 궁금함. 여타 보도 채널이 큰 자막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뉴스Y의 경우 메인 자막, 스크롤 자막, 메인

로고, 패널 소개 자막 등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시선을 분산하고 화면이 좁아지는 현상 등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들게 함. 또한 자막의 기본 바탕색인 붉은 색이 일시적으로 시선을 끄는 효과는 있지만 지속시 시청자의 피로감을 줄 수 있음. 자막처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성낙용 위원)

- 4월 20일 뉴스특보 자막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좌, 우, 중앙(중간 및 하단)의 뉴스화면 총 4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자막이 처리되고 수화방송까지 동시에 방영되어 뉴스를 보는데 가독성에 어려움을 주고 오랜 시간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집중하는데도 방해요소가 됨. 필수적인 고정적인 자막은 없앨 수 없지만 당장 보여줄 필요가 없는 자막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이헌규 위원)

▲ 프로그램 편성 및 기획의견

- 방송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도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뉴스Y의 경우 옴부즈맨 Y 프로그램을 30분 편성하고, 재방송은 저녁 7시30분부터 8시로 본 방송 배치도 시청자들이 접근하기 애매한 시간임(양승찬 위원)
- '옴부즈맨 Y'는 뉴스Y에 대한 시청자 평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시 됨. 일반적인 미디어 비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취지에 맞도록 보다 신경 써줬으면 함(양승찬 위원)
-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간략하게 여러 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헤드라인 뉴스, 또는 간추린 뉴스를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타사의 경우 법률정보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짚어주는 내용인데 뉴스Y의 편성에도 전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측면에서 법률정보제공프로그램을 신설해 보면 어떨지 함. 제목은 무겁지 않도록 '말랑말랑정보제공'이라든지 어렵지 않게 신설해보면 좋을 듯함(최진녕 위원)

▲ 부적합한 용어 및 표현 자제

- 용어문제 중 하나로 다문화라는 표현이 사회학계에서는 다문화는 적절하지 않고 다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용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최현철 위원)
- 3월 25일 뉴스워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야권 통합신당 창당을 앞두고 해산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음. 보도는 안철수 의원의 간단한 인터뷰 발언 이후 새정치 민주연합 창당을 추진하다 해산과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 대해 '손절매 정치'라는 표현으로 정리함. '손절매 정치'라는 표현에 대해 옴부즈맨(3.31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손절매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주식 관련 용어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였음

(성낙용 위원)

- 광고시간 중에도 뉴스 속보 자막을 내보내는 시도는 좋으나, 새로운 소식이라니 이미 보도된 내용들인데, "뉴스 속보"라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음. "세월호 사건소식"이나 "여객선 사고소식" 등으로 제목을 다는 것이 좋을 듯함(강대인 위원장)
- 광고시간중에 뉴스자막 속보를 내보내는 시도는 좋았으나 뉴스속보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내용에서 밝혀진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뉴스속보라고 하는 것보다 여객선 사고소식이라든지 정도로 전달해도 좋았을 것 같았음(강대인 위원장)

▲ 뉴스앵커, 기상캐스터 관련 의견

- 뉴스앵커 및 기상캐스터의 상황에 따른 옷차림 연출에 신경 써야 좋을 것(김연화 부위원장)
- 봄꽃 영상과 함께 봄소식을 알리는 남자 기상 캐스터의 옷차림은 색 질감 등 어두운 겨울 옷차림 그대로여서 봄소식을 알리는 봄꽃 영상과는 맞지 않았음. 날씨 소식을 전달하는 캐스터로서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코디가 필요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긍정적 평가

- 칠곡, 울산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론이 '계모'라는 점만 부각을 시켜, 그동안 많은 재혼가정이 계모만 강조하는 이 사건보도에 대해 많이 불편했을 것임. 하지만 14일 신율의 정정당당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계모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모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법안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우리 사회편견을 깨뜨리는 좋은 보도였음(김용주 위원)
- 타사의 사건사고 보도시 민간잠수부에 대해서 시청률 때문에 방송사고가 났었는데 방송 사고를 낸 후의 후속 내용을 뉴스Y에서는 잘 정리하여 보도해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함(최진영 위원)
- 3월 22일, 황사와 미세먼지 기준 통합 필요하다는 뉴스는 중요한 환경 관련 기사였음(양승찬 위원)
- 3월 30일, 일요일 12시 뉴스에서 프로야구 해설위원과의 전화인터뷰는 전화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앵커의 질문이 적절하고 전문성이 돋보였음(양승찬 위원)
- 4월 20일, '옴부즈맨 Y'에서 '세월호'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했음(양승찬 위원)
- 4월 20일, '신율의 정정당당'의 '긴급대담 잇따른 참사 원인은?' 코너에서 정치평론가 2인, 전직 국회의원, 변호사의 대담은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솔직한 내용 전개가 돋보였음.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짚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양승찬 위원)

- 타방송과 달리 오른쪽 자막에 사건발생 며칠이 아닌 몇 시간으로 표기를 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이 있어서 매우 좋았음(이용진 위원)
- 3월 31일 날씨 매거진에서는 이상 기온으로 빨라진 봄소식을 전하면서 이른 벚꽃 개화시기를 지역별로 나누어 알려주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3월 31일 뉴스 1번지는 북한의 '서해안 해안포 사격' 뉴스 특보 이후 전문 패널로 나온 김기호 경기대 교수와 김흥광 NK지식인 연대 대표의 도발 배경 설명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가 쉬웠음. 그리고 두 패널의 사태 대응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또한 장용훈 북한 전문기자의 북한 사격훈련에 대한 배경설명과 분석이 시청자의 신뢰를 가져올만 했음. 북한의 최근의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훈련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한 점은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등 전문성이 돋보였음. 그리고 핵실험과 관련한 다양한 추측과 국제 사회의 입장,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 등을 정리해서 전달한 점도 좋았음(성낙용 위원)
- 4월 17일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시 전해군 중령 출연은 차별성 있는 출연자였음(강대인 위원장)
- 4월 3일 날씨매거진 코너 중 생활 날씨에서 과학의 달을 다뤄 인상적이었음. 4월 날씨 뉴스에서는 대부분 벚꽃 등의 계절(봄)축제에 집중되는데 '과학의 달'로 접근을 시도하여 신선했음.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과학축제 및 전시행사 정보에 대한 자세한 전달이 좋았음. 또한 수도권 정보뿐만 아니라 서울과학전시회(우주항공체험 마당), 국립과천과학관(해피 사이언스 데이), 부산과학교육원(별축제), 울산과학관(천체체험관) 등 전국 각 지역의 행사를 다양하게 소개해준 것도 바람직해 보임(이헌규 위원)
- 4월 13일 뉴스Y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뇌분야 연구인 '마인드 업로딩'에 대한 세계 최신 동향을 전달한 과학뉴스가 보도됨. 우리나라에는 다소 생소한 연구분야로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물이나 육체로 이동시키는 뇌과학 관련 연구임. 뉴스 구성에 있어 영화 아바타를 비유로 대중적 이해도를 높였으며, 미래학자이자 구글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 재미 한국과학자이자 뇌신경 연결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세바스찬 승,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의 구체적 소견 및 인터뷰를 소개함으로써 더욱 신뢰도 있는 뉴스가 구성됨. 또한 선진국들의 뇌 연구 분야에 대한 동향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줌으로써 과학이 미래 산업과 연계되어 엄청난 경제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 함의가 무궁무진하다는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잘 알려준 과학뉴스로 평가됨(이헌규 위원)

(끝)

